

과학을 넘어서, 정보전달과 이해도 사이의 갈등과 선택

과학 책을 번역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그동안 몇 권이나 번역했는지 인터넷 서점을 뒤져보았다. 아동책까지 합쳐 서른 권이 채 안 되었다. 그런 수치를 보고 나니,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어딘가 자격이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든다. 고충을 말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저럭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는 논리를 갖추려면 책을 몇 권이나 우리말로 옮겨야 할까? 백권쯤? 하긴 그때쯤 되면 어려움이란 것도 일상적인 문제를 떠나 고차원적인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어정쩡한 번역가인 지금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법하다.

이 한 음 _ 과학 전문 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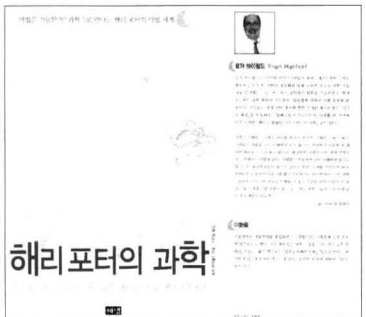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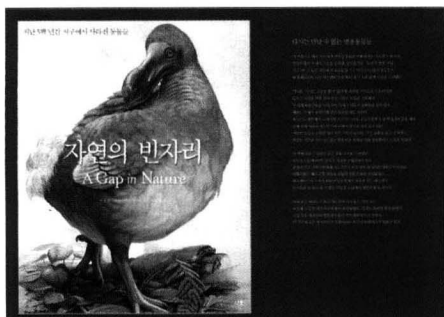
주로 과학 책을 번역했으니 이야기를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겠지만, 사실 요즘 외국에서 출간되는 과학책들은 단지 과학만 다루고 있지 않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들이 양념이나 전채 요리처럼, 때로는 본요리인 양 들어가 있을 때가 흔하다. 좋게 말하면 학제간이 되고, 세속적으로 어렵하면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서술 방식이 번역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번역을 하려면 잡학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 보면, 평소 잡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번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한 것 같다. 가끔 학제간을 강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해석까지 스스로 덧붙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내 자신도 의심스럽다. 하지만 아무리 박식하다고 해도, 현학을 앞세우는 원작자와 시쳇말로 코드가 맞는 경우는 드물다. 저자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실과 가설을 끌어 들여 이야기를 펼치고 있으면, 나는 한 줄도 우리말로 옮기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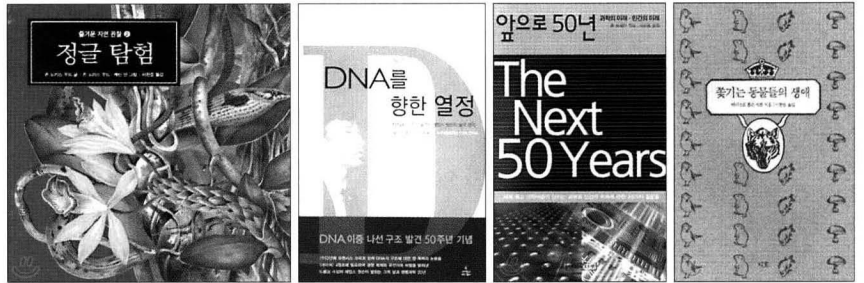
한 채 인터넷을 뒤지고 있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방대한 인터넷이 있고, 그 안에 웬만한 정보가 다 들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가 한 마디 툭 던져놓은 단어라도 인터넷에는 단서가 나와 있다. 처음 책을 번역할 때, 달랑 나와 있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의 맥락을 찾기 위해 도서관과 서점을 순례하던 것을 떠올리면, 말 그대로 세월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간이 아까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정보의 바다는 구글www.googol.com 같은 검색엔진조차 힘에 부칠 정도로 넓고 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여기서도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는지, 찾으려는 것이 사전에도 없고 인터넷에도 없는 상황과 종종 마주치게 된다.

한편 과학 자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툭 던져놓은 단어 하나나 문장 한 줄에 과학의 역사가 담겨 있을 때가 많다. 또 저자도 주로 그런 의도로 그런 단어나 문장을 쓰거나 인용할 때가 많다. 저자는 과학의 흐름이나 역사를 한 글귀 속에 압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뿌듯해하겠지만, 번역자인 나는 그런 글귀와 마주칠 때



◎ 이 글을 쓴 이한음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였고 경향신문 신춘문에 소설 부문에 당선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과학소설집 《신이 되고 싶은 컴퓨터》가 있으며, 역서로는 《해변의 과학자들》 《인간 본성에 대하여》 《핀치의 부리》 《유전자지 세기는 끝났다》 《복제양 돌리》 《쫓기는 동물들의 생애》 등이 있다.



마다 역시 인터넷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글귀에 골치를 썩고 있다 보면 과학사 전공자가 된 듯한 느낌도 든다. 아무튼 그것의 의미를 찾아 풀어쓰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때, 머릿속에서 저절로 비유 편익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과학 책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라면,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주로 해야 할지, 이해하기 쉽도록 옮기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할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어정쩡한 번역자인 까닭에 어느 한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나는 번역할 때 되도록 '-의한, -관한, -대한' 같은 말들을 안 쓰려 하지만, 불행히도 과학자들은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고 내용을 간결하게 압축해 표현하는 논문 문체를 훈련받은 사람들인지라, 그들의 글을 그대로 옮기면 사실 '-의한, -관한, -대한'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불행한 점은 그렇게 명사들을 죽 나열하는 방식이 저자의 본래 의도와 맞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과학 책에서는 영어 한 단어에 우리말 한 단어를 대응시켜야 가장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체는 그런 식으로 옮기면 왠지 저급한 우리말이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색하다든지, 단어 활용이 적절치 않다든지 하는 평이 나오기 마련이다.

체대로 옮길 우리말이 없다는 것도 이런 평을 얻는 데 한몫을 한다. 과학 분야에서는 낱말이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것들은 대부분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도 낯설 수밖에

에 없다. '검은구멍'이나 '벌레구멍'처럼 일상용어를 과학용어로 차용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가 더 많다. 거기다가 여러 사람들이 각자 고심해서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 정립되지 않은 우리말 용어들이 여럿 생기는 사태도 벌어진다. 번역이 혼란을 부추기는 셈이다.

결국 과학 책을 번역하다 보면, 정보전달이라는 차원에서 알게 모르게 원문에 얽매이게 된다. 그리고 번역한 책이 나오고 난 뒤에는 내심 그것을 날림 번역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지적하자면, 저자들이 주체할 수 없는 방대한 지식을 수집해 교양 과학서를 쓰려고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원서에서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는 점이다. 특히 생물의 학명오류 같은 것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원서의 교정 오류이겠지만, 이것은 번역자를 생고생시키는 부류의 오류에 속한다. 그 외에 과학적 사실과 개인적 삶을 다룬 부분에서도 오류가 간혹 발견된다. 이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과학 책 역자의 몫일 것이다. 물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사실 옮기면서 그보다 더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지만 말이다.

아쉽게도 과학 책은 한 번 번역해 내놓으면 실수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재판을 찍을 때 교정해야 하는데 과학 책은 재판을 찍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자의 수입에도 지장이 많다. 마지막 문장은 다른 역자들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쓰라고 강요한 것임을 밝혀둔다. **한음**